

최강한파

명과 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한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따뜻한 전남지역이 축구·야구 등 스포츠팀의 동계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오후 강진군 군동면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은혜중학교 축구팀이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강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온화한 전남 동계훈련 특수

시설 좋고 먹을거리도 풍부

강진·화순 등 150팀 7000명

계속되는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전남지역이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강추위와 잦은 눈으로 다른 지역에서 동계 훈련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전남을 동계훈련지로 정한 팀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지난해에 비해 30~4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은 10일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현재 79개팀 2910명(연인원 2만8875명)이 지역 체육관과 경기장 등지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이를 통해 29억3000여만원의 경제 파급효과(한국은행 기준 1인당 파급효과 10만1000원×연인원)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12월~2012년 2월 스포츠팀 유치로 강진군은 32억원의 파급효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오는 2월까지 합쳐 2배가 넘는 66억원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축구장 8개면을 갖춘 축구전용구장과 하백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강

진군은 국내 동계 훈련지로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온화하고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날씨 덕분에 경기 단체들도 강진에서 열리는 대회를 선호하고 있다. 강진군은 오는 12일까지 축구 동계스토틀리그(초·고등부)대회를 시작으로 제10회 청자배전국유수중학교 초청축구대회(오는 16일까지)를 개최한다.

화순군도 추운 날씨에 합박웃음을 짓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화순공설운동장 등 4곳에서 전국 각 지역 대학 및 중·고교 20개 축구팀 560명이, 18일부터 2월6일까지는 하니움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선수 70명이 동계 훈련에 들어간다. 또 1월19~24일에는 화순초교 등 2곳에서 10개팀 180명 등 겨울철 화순을 찾는 선수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한파와 폭설로 떠어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 지역에는 12개종목 147팀 6946명(연인원 5만4697명)이 이 지역을 찾아 55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 화순=조성수기자

저수온에 양식장은 초비상

여수, 물고기들 집단 이사

벗꽃 부족 축산농가 올상

잡은 눈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양식장 물고기가 따뜻한 해역으로 이사를 하고, 벗꽃 가격이 치솟는 등 전남지역 농어촌의 ‘겨울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바다 수온이 평년에 비해 2~4℃가량 낮고, 한파가 기승을 부려 양식장에 이상이 겼었다.

이에 최근 여수 일대 양식장 17여가에서 참돔, 감성돔, 돌돔 등 수온이 민감한 물고기 150만마를 따뜻한 해역(남면 장지, 안도 등지)으로 이동시켰다. 여수지역 돌류 양식장 30여가 중 절반 이상이 물고기 월동을 위해 양식장을 통째로 옮긴 셈이다.

이처럼 대규모 ‘물고기 이사 작전’이 펼쳐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여수 해역에서 이상 한파로 어류가 폐죽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참돔 등 797만마가 추위로 폐사, 80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지난 2000년 이후 1790만마 가량의 물고기가 한파로 죽어 200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농촌에서도 이상기후로 농사 일정이 달라지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유자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12월 초순부터 옷자란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한파로 손을 놓고 있다.

과거 ‘3한4온’의 겨울 날씨에 길든 유자 나무들이 올 겨울 계속되는 기습한파로 시들시들한 상태이며, 나뭇가지를 잘라내면 식물도 일정 기간 생명력이 약해지는데 추위까지 겹쳐 가지치기를 하면 말라 죽기 때문이다.

또 잦은 비와 눈으로 겨울 국도변을 장식했던 하얀 비닐에 쌓인 거대한 벗꽃 더미(생벗꽃 곤포 사일리지)의 모습도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10월 초 벼를 수확한 뒤 연이어 비가 내리고, 11월 말부터 계속된 잦은 눈 때문에 눈에 물기가 많아 벗꽃을 모으고 비닐로 싸는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벗꽃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 먹이용 벗꽃 조사료를 구하지 못한 축산농가에도 이상이 겼었다. 이들 축산농가는 조사료를 벗꽃을 확보해 1년을 먹이는데 일선 논에서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해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한톨당 6만8000가량이었던 생벗꽃 곤포 사일리지의 가격은 최근 8만5000원~9만원까지 치솟았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임문택기자 mtlim@



지식·교양·지혜의 향연에 호남의 지도자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기 원생 모집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고품격 아카데미에 모십니다. 광주일보에는 2013년 3월부터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61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 강생들과 함께 구축하고자 합니다. 광주일보가 평생가족으로 모시는 최고급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법조 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2013년 3월~2014년 2월(하계·동계기간 방학)
-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2년 12월 24일~2013년 2월 22일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 220-0555, 018-693-6604

光州日報社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IOPE 스킨리포트

3일 후, 기대하세요! 피부 좋아졌다는 말!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바이오인자로 구성된 Bio-redox™ 성분으로
3일만 사용해도 피부 좋아졌다는 칭찬을 듣게 해드립니다

아이오페 연구진은 25일간 빛, 온도, 물, 공기를 제어하는 바이오 인큐베이팅 기술을 통해 항산화효소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피부 친화적인 바이오성분인 Bio-redox™가 바이오 에센스 한 병에 93.7% 함유되어 피부상태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줍니다.

3일 만에 느껴지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피부 컨디션 개선에 만족한다	90%
피부 매끄러움에 만족한다	90%
피부 윤기가 증가함을 느낀다	90%
피부 보습력에 만족한다	90%

바이오 에센스 임상실험자 대상 3일 후 만족도 조사 결과
2012.4.9~2012.4.30 생인대성 20명 대상 / 조사기간: (주)다이아프로

NEW
바이오 에센스
IOPE

168 ml / 5.68 FL.OZ.



3일 후 피부상태를 받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찍어주세요!